건강한 문화를 일구어가는 기업의 표본 될 터

이 상 호 | 동아제약홍보팀

기업은 자본과 노동력을 이용해 제품을 만들고 그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그 이익을 이용해 기업을 살찌우고 다시 제품을 만드는 ' 생산과 판매 ' 라는 고리가 연속선상에서 주기운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고리가 커지게 되면 기업은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일 테지만때로는이러한고리가작아지다가어느새없어지는경우도있다. 전자의경우기업은나뭇꾼이숲을 가꾸듯기업의제품을구매해주는소비자를가꾸었을 경우라면 후자는 이를 소홀히 한 경우라 할 수 있다. 기업이잉여이익을통해자산을관리하고성장시킨다면소비자와사회는문화라는양분을먹고자란다.

이런 현실에서 기업들 스스로가 문화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했고 로마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대 유명한 예술 후원자였던 가이우스클리니우스 메세나스에서 유래했다는 한국기업메세나협의회가 1994년 결성돼 활동중이다. 아직까지는 그 영향력이 대중과 기업양측모두에만족할만큼궤도에올랐다고볼수는 없다. 그러나 최근 기업이나 문화예술인들 자체의 마인드도변화하고있고문화자체도과거와는달리확실한 OUTPUT이존재할수있는하나의산업이라는 마인드도 보편화되고 있다. 이것이 문화에 대한 투자라는측면에서는일견바람직하다고할수있으나, 문화의 산업화나 트랜드화 대형 프로젝트화 등 우리가 많이생각하고보완해야할점이드러나고있다.

동아제약수석문화재단(이사장강신호)이지원하고 있는' 마로니에전국여성백일장 '은이러한변화속에

2001년 ' 마로니에전국여성백일장 ' 시상식

서다른기업들의문화지원과는차별된모습을보이고 있다. 문예진흥원과함께동아제약수석문화재단이공동으로주관하고있는이 행사는일반인들 특히 문화적으로나사회적으로소외돼일상속에묻혀지내는일반여성들을위한행사로 23세이상이면누구나참여해작품을제출하고수상자에게는등단의기회도제공하는행사이다. 올해로 19회째를맡고있는이행사는최근컴퓨터나인터넷이일반화되고있는상황에서마로니에야외공원에서직접원고지에한자한자써내려가는전통적인백일장형태를유지하고있다는점에서여타행사와는차별화되고있다. 이행사를벌써 10년이 훨씬 넘는 기간동안지원하고있는동아제약 수석문화재단은 1987년동아제약 강신호 회장이‘ 타인을위해일할줄아는책임있는인재를육성 하기위해설립한 수석장학회를 동아제약 창립 60주년인 1992년에발전적으로개편한재단이다. 장학사업과학술지원 등을 주 사업으로하고있는수석문화재단의‘ 마로니에전국여성백일장 에대한애착또한여타기업들과는다르다. 지원이라고하기보다는함께한다는표현이 적합한것 같다는이준원동아제약홍보부장은‘ 마로니에전국여성백일장 ’을진행하면서느낀점을이렇게이야기한다.“ 문화를즐기는데는3가지방법이있다고 합니다.‘ 참여, 소유, 감상. ’이 세 가지 방법중‘ 전국 여성 백일장 은 그 중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차별 없는‘ 참여 라는 방법을 취하고 있고 이것은 어떤 조건에 관계없이 생명은 똑같이 존중되어야 한다는저희동아제약의기업이념과도뜻을같이합니다. 또한 회를 거듭할수록 참여하시는 분들에게서 동아제약에 대한 호의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기업과소비자가문화를매개로공감대를형성한다는의미입니다. 무엇과도바꿀수없는소중한우리의 자산입니다. 내년20회에는좀더많은분들이함께할 수있는행사가되었으면합니다 ”

박카스라는대표브랜드의캠페인성광고로소비자들의 호평을받고있는동아제약의그 광고처럼 변치않아야할가치들을‘ 지킬건지키는 ’모습으로아주오랫동안 마로니에 백일장과 함께, 소비자와 함께 건강한 문화를일구어가는기업의 표본으로더욱발전하길기원한다.